

## 겹받침 중 ㄴ, ㄹ에서 ㄴ과 ㄹ이 발음되는 까닭 고찰

김 승 곤(건국대)

### <차 례>

1. 머리말
2. 본 론
  - 2.1 국어 들 받침의 발음
    - 2.1.1 국어의 들 받침은 그 중 공깃길이 작은 것이 발음된다.
    - 2.1.2 ㄴ, ㄹ에서 ㄴ과 ㄹ이 발음되는 까닭
      - 2.1.2.1 훈민정음의 사잇소리 규정에서
      - 2.1.2.2 합성어에서 받침 ㅅ, ㅆ, ㅈ, ㅊ의 대표음은 ㄷ이라는 사실에서
      - 2.1.2.3 자음동화에서
  - 2.2 마무리
    - 2.2.1 받침 ㅎ의 대표음은 ㄷ이다.
    - 2.2.2 들 받침 중에서 공깃길이 작은 소리가 발음되는 까닭.
3. 맺음말

### 1. 머리말

글쓴이는 1987년에 간행된 장태진 교수의 회갑 기념논총에 「겹받침 가운데 한 받침의 묵음화에 관한 생리음성학적 원인 고찰」이란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거기서는 ㄴ, ㄹ과 ㄴ에서 왜 큰 ㄴ과 ㄹ이 발음되는가에 대하여 「뜻의 변별」을 그 까닭으로 설명하는 정도로 그치고 말았다. 그후 계속 연구한 결과 이제 그 까닭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것을 밝히고자 한다.

사실, 말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 우리말의 발음에는 다른 말보다 더 정연한

규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을 통해서도, 우리말이 규칙이 매우 뚜렷한 언어임을 다시 깨닫게 될 것이다.

## 2. 본 론

### 2.1 국어 들 받침의 발음

#### 2.1.1 국어의 들 받침은 그 중 공깃길의 작은 것이 발음된다.

국어의 들 받침에는 ㄱ, ㅅ, ㄷ, ㄴ, ㄹ, ㄺ, ㄻ, ㄼ, ㄽ, ㅍ, ㅂ 등이 있는데, ㄱ, ㅅ, ㅍ은 별 문제 없으나, ㄷ, ㄴ, ㄹ, ㄺ, ㄻ은 공깃길이 작은 ㄱ, ㅁ, ㅂ만 발음 되는데, ㄴ ㄹ은 ㄹ이 발음되며, ㄺ은 그 다음에 반드시 홀소리 토씨가 오므로 ㄹ과 ㅅ이 동시에 발음된다. 그리고, ㄴ도 다 발음되나 닿소리로 시작되는 씨끝이 오면 ㄴ이 발음된다.

- (1) ㄱ. 앓다 → [안따] (공깃길이 큰 ㄴ이 발음됨)  
 ㄴ. 많다 → [만타]  
 ㄷ. 늙다 → [늑따]  
 ㄹ. 젊다 → [점따]  
 ㅁ. 넓다 → [넙따]  
 ㅂ. 훑다 → [훑따] (공깃길이 큰 ㄹ이 발음됨)  
 ㅅ. 읊다 → [읊따]  
 ㅇ. 없다 → [엎따]<sup>1)</sup>

#### 2.1.2 ㄴ과 ㄹ, ㄹ에서 ㄴ과 ㄹ이 발음되는 까닭

##### 2.1.2.1 훈민정음의 사잇소리 규정에서

2.1.2의 까닭을 알기 위해서는 훈민정음의 규정에서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2) ㄱ. i. ㄱ은 임쏘리니 君군드字 처삼 피아 나는 소리 ㄱ터니

1) 이 보기는 한글맞춤법 제 15 항에 의지함. 그리고 [ ] 안은 실제 발음을 나타냄.

- ii. ㄱ은 엄쏘리니 快靨<sub>ㄱ</sub>字 처섬 꺾어 나는 소리 ㄱㅌ니
- ㄴ. i. ㄷ는 혀쏘리니 斗靨<sub>ㄷ</sub>字 처섬 꺾어 나는 소리 ㄱㅌ니
- ii. ㅌ는 혀쏘리니 呑靨<sub>ㄷ</sub>字 처섬 꺾어 나는 소리 ㄱㅌ니라.
- ㄷ. ㅅ는 니쏘리니 侵침<sub>ㄷ</sub>字 처섬 꺾어 나는 소리 ㄱㅌ니라.
- ㄹ. ㅅ는 半니쏘리니 穰<sub>ㄷ</sub>字 처섬 꺾어 나는 소리 ㄱㅌ니라.

(27-ㄴ)에서 보면, 사잇소리는 다음과 같이 쓰이었음을 정리할 수 있다.

- (3) ㄱ. 아음 ㅅ 밑에서는 사잇소리는 ㄱ
- ㄴ. 설음 ㄴ 밑에서는 ㄷ
- ㄷ. 순음 ㅁ, ㅂ 밑에서는 ㅃ, ㅅ

(37-ㄷ)에서 보면, 받침 ㅅ 밑의 사잇소리는 그와 같은 계열의 안울림소리 ㄱ이 쓰이었고 받침 ㄴ 밑에서는 ㄷ이, ㅁ과 ㅂ 밑에서는 ㅃ과 ㅅ이 각각 쓰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까닭은 어디 있을까? 그것은 ㅅ과 ㄱ, ㄴ과 ㄷ, ㅁ과 ㅃ, ㅂ의 조음점이 같으므로 ㅅ의 조음위치에서 그 울림만 없애면 ㄱ이 되고 ㄴ의 자리에서 울림만 없애면 ㄷ이 되고 ㅁ, ㅂ의 경우에도 그와 같아서, 발음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ㄱ의 조음위치에서 울림만 더하면 ㅅ이 되고, ㄷ의 조음위치에서 울림만 더하면 ㄴ이 되고, ㅃ과 ㅅ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ㅁ과 ㅂ이 각각 발음된다. 즉 같은 계열의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는 말본적 구실에 따라 상호적으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3)의 사실을 거꾸로 말하면 같은 계열의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가 같은 자리에서 소리날 때는 울림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2.1.2.2 합성어 받침 「ㅅ, ㅆ, ㅅ, ㅌ」의 대표음은 ㄷ이라는 사실에서 현대 국어에서 보기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4) ㄱ. 웃어른 → 우더른                      웃안 → 오단
- 햇웃 → 하뚫                            웃어른 → 우더른
- ㄴ. 젓어미 → 저더미                      젓어머니 → 저더머니
- 젓아래 → 저다래                      젓위 → 저뒤

ㄷ. 갖웃 → 가돏	꽃아래 → 꼬다래
낮익다 → 나딛다	
ㄹ. 발언덕 → 바던덕	발아래 → 바다래
날알 → 나달	홀웃 → 호돏

(47 -ㄴ)에서의 사실을 다시 말해 보면, 합성어에서 「ㅅ, ㅆ, ㅈ, ㅊ」이 받침으로 쓰이어 발음되면, ㅊ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조음점은 ㄷ의 조음점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ㄷ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 2.1.2.3 자음동화에서

국어의 자음동화를 보면, 안울림소리가 그와 계통이 다른 울림소리와 이어서 발음 되면 그 안울림소리는 그와 같은 계열의 울림소리로 바뀌지, 그와 계통이 다른 울림소리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계통이 같은 안울림소리가 울림소리와 이어서 발음되면, 그 울림소리와 완전동화가 된다.

(5) ㄱ. i 먹는 → 멍는,	ii 먹물 → 멍물
ㄴ. i 달는 → 단는,	ii 날마다 → 난마다
ㄷ. i 입는 → 임는	ii 입마다 → 임마다
ㄹ. i 웃는 → 운는	ii 웃마다 → 운마다
ㅁ. i 젓는 → 전는	ii 젓마다 → 전마다
ㅂ. i 쫓는 → 쫘는	ii 쫓마다 → 쫘마다
ㅅ. i 붙는 → 분는	ii (한)날만 → 난만
ㅇ. i 덮는 → 덩는	ii 잎마다 → 임마다

(57 -ㅇ)에서 보면, 완전동화를 한 것은 (5ㄷ)의 ii와 (5ㅇ)의 ii뿐이고 나머지는 받침으로 쓰인 안울림소리와 같은 계통의 울림소리로 되었다.

그러면, 둘 받침의 경우는 어떠한가 보기로 하자.

(6) ㄱ. 앓는 → 앓는 → 앓는 → 안는
ㄴ. 앓는 → 앓는 → 앓는 → 안는 <sup>2)</sup>
ㄷ. 늙는 → 능는

- ㄹ. 닳는 → 닦는
- ㅁ. 밟는 → 밤는
- ㅂ. 훑는 → **훑**는 → **훑**는 → 훑는 → 훑른
- ㅅ. 읊는 → 읊는
- ㅇ. 앓는 → 앓는
- ㅈ. 꿩는 → **꿩**는 → **꿩**는 → 꿩른

(67-ㄱ)에서 보면, ㄴ과 ㄹ에서 공깃길이가 큰 ㄴ이 발음되는 까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앓는」에서 ㄴ의 ㅅ이 (4ㄴ)에 따라 ㄷ으로 되고 이것이 「-는」의 ㄴ에 동화되어 ㄴ이 되니까, ㄴ은 ㄴ으로 되어 「**앓**는」이 되는데, 여기서 받침 ㄴ중 소리는 하나만 나면 되므로 「**앓**는」은 「안는」으로 소리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ㄹ의 (4)의 보기에 따라 ㄹ은 ㄷ으로 되므로 그 소리나는 과정을 보면 ㄹ의 경우도 「**앓**는 → **앓**는 → 안는」으로 소리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6ㄷ)에서 보면, ㄹ은 ㄹ이 소리나고 ㅌ은 줄어들는데, 그 까닭은 받침 ㄹ에서 ㅌ은 (4ㄹ)에 따라, ㄹ이 되고 이 ㄷ은 그 다음의 씨끝 「-는」을 닳아 ㄴ으로 되므로 전체는 ㄴㄴ이 된다. 여기서의 ㄴ은 씨끝 「-는」의 첫소리 ㄴ과 중첩이 되는데, 국어에서 울림소리의 거듭은 하나로만 소리나게 되므로 「ㄹ+ㄴ」은 「ㄴ+ㄴ」으로 되어 둘 받침 중 ㄴ은 줄고 ㄹ만 남게 되며, 받침 ㄹ 다음의 씨끝 첫소리 ㄴ은 받침 ㄹ을 닳아 ㄹ이 되고 결국 「**훑**는」은 「**훑**른」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계통의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가 둘 받침이 될 때는 울림소리만 소리나게 되고 안울림소리는 소리가 나지 않게 되는 것인데, 그 까닭은 (67, ㄴ)과 (6ㄷ)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6ㄱ)에서 보면 둘 받침 ㄹ의 ㅎ은 그 대표음이 ㄷ으로 소리나는데, ㄹ은 「ㄹ」으로 되고 여기서의 ㄷ은 그에 이어 소리나는 씨끝 「-는」의 첫소리 ㄴ을 닳아 ㄴㄴ이 된다. 그렇게 되면, 「**꿩**+는」으로 되므로 받침 ㄹ의 ㄴ과 「는」의 첫소리 ㄴ이 거듭되므로 ㄴㄴ의 「-는」은 「-른」으로 된다. 즉 「**꿩**는 → **꿩**는 → 꿩는 → **꿩**른」으로 되는 것이다. 여기서도 (6ㄷ)과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같은 계통의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가 합하여 둘 받침이 되면 울림소리만 소리나고 안울림소리는 소리가 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2) 여기서 「**앓**는」은 「공부하지 **앓**는」과 같이 「아니하」가 준 것이다.

## 2.2 마무리

여기서는 앞에서 받침 ㅎ의 대표음이 ㄷ임을 증명하지 않아서, 그것을 증명하고 자음동화와 ㅈ, ㅊ, ㅌ, ㄴ에서 ㄹ과 ㄴ이 발음되고 공깃길이 작은 ㅌ, ㅎ, ㅌ이 발음되지 않는 까닭을 종합하여 간추림으로써 이 장의 글을 맺으려 한다.

### 2.2.1 받침 ㅎ의 대표음은 ㄷ이다.

움직씨 줄기의 받침 ㅎ은 울림소리로 되는 씨끝 「-는」 앞에서 ㄴ으로 소리나는데, 그 까닭은 ㅎ이 ㄷ으로 바뀌어 ㄴ에 동화되어 그와 같은 계열의 울림소리로 발음되는 우리말의 발음원리에 따르는 데 있다.

- (7) ㄱ. 낳는 → 날는 → 난는  
 ㄴ. 닳는 → 달는 → 단는

(7ㄱ, ㄴ)의 보기에 의하여 판단하면 ㄹ, ㄴ은 ㄷ, ㄴ으로 되므로 여기의 받침 ㄷ이 「-는」의 첫소리 ㄴ에 동화되어 ㄴ으로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알는」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받침 ㄹ만 소리나게 된다. 즉 「알는 → 알~~ㄴ~~는 → 알~~ㄴ~~는 → 알는」과 같은 과정을 거쳐 ㄹ은 ㄹ로만 소리나게 된다. 이와 같이 ㄴ도 「알는 → 알~~ㄴ~~는 → 알~~ㄴ~~는 → 알는」과 같은 과정을 거쳐 ㄴ만 소리나게 되는 것이다.

### 2.2.2 둘 받침 중에서 공깃길이 작은 소리가 발음되는 까닭

그러면, 여기서는 「ㄹ, ㄹ, ㄹ, ㅈ, ㅈ」 중 공깃길이 작은 받침이 왜 소리나게 되는가에 대하여 알아 봄으로써 이들의 발음이 「ㄹ, ㄴ」의 경우와 다른 까닭을 밝혀 보고자 한다.

- (8) ㄱ. 밝는 → 방는  
 ㄴ. 뵈는 → 밍는  
 ㄷ. 뵈는 → 밍는  
 ㄹ. 읊는 → 읊는  
 ㅁ. 읊는 → 읊는

(8ㄱ-ㅁ)에서 보면 ㄹ, ㄹ, ㄹ, ㅈ, ㅈ이 자음동화될 때는 공깃길이 작은 ㄱ, ㅈ, ㅁ,

ㅍ, ㅂ 등이 된다. 그런데 왜 ㄴ, ㄷ, ㄹ, ㄷ에서는 ㄴ과 ㄷ은 달리 ㄴ이 발음되지 않는  
 가 하는데도 의문의 초점이 모아진다. 필자는 그 까닭을 말밑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차례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9) 밟다 : ㅍ → ㅂ

(9)의 「밟」은 본래 「ㅍ」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ㅍ 혁거세」의 「ㅍ」에서도 알 수  
 있다. 여기에 후대로 오면서 ㄴ 소리가 첨가 발음되매, 오늘날 「밟다」가 되었을 것  
 이다. 따라서, 발음은 ㄴ 이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10) 밟다 : ㅍ → ㅍ + ㅂ → ㅂ

(10)에서 ㄴ 「ㅍ(足)」이 움직씨로 되기 위해서는 움직씨 파생접사 「-ㅂ-」이 와서 움  
 직씨가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음과 양순폐쇄음이 동시에 발음되니까, 발음상  
 의 이유도 있겠지마는 형태상의 이유가 더 중요시되어 ㅂ 이 발음되는 것으로 보인  
 다.

(11) 밟다 : ㅍ(이름씨) → ㅍ + ㅁ(움직씨 파생접사) → ㅂ

(11)의 경우도 이름씨 「ㅍ」이 움직씨가 되기 위하여 붙은 파생접사 「ㅁ」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ㅁ」이 발음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ㅍ +  
 ㅁ」로 되어 움직씨가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12) ㄴ. 읊다 : ㅍ(이름씨) + ㄷ → ㅍ + ㄷ → ㄴ + ㄷ → ㄴ

「읊다」도 이름씨 「ㅍ」에 「ㄷ」가 오고 이 「ㅍ」이 점점 바뀌어 「ㄴ」으로 되어 오늘  
 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ㄴ」은 후대에 붙은 것으로 보이며, 본래부터 있었던  
 「ㅍ」, 「ㅍ」이 그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13) 읊다 : ㅍ스 + ㄷ → ㄴ

「없다」의 옛말 표기는 「업다」이다. 이것을 보면 「ㅂ」이 으뜸이고 「ㅅ」은 버금으로 그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지므로, 「ㅂ」이 발음되지 않을 수 없다.

이상 형태적인 면에서 공깃길이 작은 받침이 발음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달리 발음의 편이성에서 공깃길이 작은 것이 발음되게 되었던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옛날 이조때부터 발음의 편이상 공깃길이 작은 소리가 발음되어 오던 관습에 따라 오늘날도 그렇게 발음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상 (8)과 (9)-(13)까지에서 보아서 ㄹ, ㅍ, ㅂ, ㅃ, ㅅ은 공깃길이 작은 것이 발음되는 까닭을 형태적인 면에서 보거나 발음의 편이성으로 보아 발음되는 까닭을 살펴 보았다.

### 3. 맺음말

글쓴이는 국어의 들 받침 중 ㄹ, ㅍ, ㅂ, ㅃ, ㅅ은 공깃길이 작은 것이 소리나는데 왜 ㅃ, ㅅ, ㅂ은 공깃길이 큰 ㄹ이 발음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ㅃ(ㅃ도 마찬가지로)이 받침으로 발음될 때는 ㄹ과 ㅌ의 조음점이 같다. 왜냐하면, 같은 계통의 설음이기 때문인데, ㄹ은 울림소리요, ㅌ은 안울림소리요, ㄹ은 외파음이요, ㅌ은 받침때는 내파음이 되므로 자연히 ㄹ이 소리나게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ㄹ이 소리나게 되는 것이다.

2) ㅅ(ㅅ도 같다)이 받침으로 발음될 때는 ㄷ의 조음점은 ㄷ과 같은데, 그러면 ㄴ과 ㅅ은 설음으로 조음점이 같은데, 이들이 받침으로 발음되면 ㄴ은 외파음이요, ㄷ은 내파음이 되니까, ㄴ이 발음됨은 당연한 일이다.

3) 끝으로 앞에서 별 언급이 없었던 ㄹ을 보면 ㄹ이 발음된다. 즉 「꺾」에서 그러하다 그 까닭도 「꺾 → 꺾 → 꺾」로 볼 수 있다. 즉 같은 계통의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가 합하여 들 받침으로 쓰이면 울림소리가 발음된다는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